

최진규의 토종약초 이야기 ⑤

장염과 암치료에 효과 뛰어난 - 비단풀

열 내리고 독을 풀며 통증 멎게하는 작용 말린것 5~12g 달여 골고루 두세번 복용

비단풀은 대극과에 딸린 한해살이 풀이다. 언뜻 보면 쇠비름을 닮았으나 쇠비름보다 훨씬 작다. 풀밭이나 마당, 길 옆에 흔히 자라지만 작아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줄기는 땅바닥을 기면서 자라고 줄기나 잎에 상처를 내면 흰즙이 나온다.

내금초, 점박이풀 등으로 부르고 지금(地錦), 지면(地綿), 초혈갈(草血竭), 혈견수(血見愁), 오공초(蜈蚣草), 선도초(仙桃草), 등의 여러 이름이 있다.

비단풀은 항암작용과 해독작용, 항균작용, 진정작용 등이 뛰어나서 갖가지 암, 염증, 천식, 당뇨병, 심장병, 신장질환, 악성 두통, 정신불안증 등

에 두루 널리 쓸 수 있다. 열을 내리고 독을 풀며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피가 나는 것을 멈추며 젖을 잘 나오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이 있다. 세균성 설사, 장염, 기침으로 목에서 피가 넘어올 때, 혈변, 자궁, 출혈, 습열로 인한 황달, 짓이 잘 안 나오는 데, 종기, 종창, 타박상으로 붓고 아픈 것 등을 치료한다. 종기와 악창, 위가 거북하고 배에 가스가 차는 것, 두통, 비염, 치질에도 효과가 좋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통증을 멎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독성은 전혀 없다.

복용법도 쉽고 간단하다. 말린 것은 하루에 5~12그램을 달여서 하루에 두세 번 나누

어 복용하고 날 것은 30~80그램을 달여서 복용한다. 그늘에서 말려 가루 내어 복용할 수도 있다. 외용으로 쓸 때는 날 것을 짓찧어 붙이거나 가루 내어 뿌린다. 비단풀을 질병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질, 설사〉

그늘에서 말려 하루 5~10그램을 미음과 함께 먹는다. 또는 말려서 가루내어 한 번에 5~10그램씩 빈속에 미음과 함께 먹는다.

〈위염, 대장염〉

날것으로 40~80그램을 달여서 복용한다. 급성이나 만성 장염을 치료하는 효력이 매우 뛰어나다. 장염이 심하면 하루에 날것으로 100그램



이상, 말린 것으로 50그램 이상을 달여 먹거나 가루 내어 먹는다. 95퍼센트 이상이 치유되거나 호전된다.

〈감기로 인한 기침, 혈변, 토혈, 자궁출혈, 혈뇨〉

신선한 비단풀 40그램을 달여서 먹거나 그늘에서 말려 꿀로 알약을 지어 먹는다.

〈자궁출혈〉

날 것을 꼭 찌서 참기름, 생강, 소금, 한 숟갈과 함께 먹는다. 또는 그늘에서 말린 것 5~10그램을 생강과 함께 먹는다. 또는 비단풀 2근을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줄여서 고약처럼 되게 하여 한 번에 5그램씩 하루 두 번 증류수 반잔과 함께 복용한다.

〈상처에 출혈이 멎지 않을 때〉

날 것을 짓찧어 붙이면 곧 피가 멎는다.

〈잇몸염증〉

달인 물로 양치질을 하고 입을 헹군다. 3~10일이면 낫는다.

〈대상포진〉

날 것을 짓찧어 식초와 섞어 붙이거나 말린 것을 가루내어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개어 바른다.

〈인후염〉

날 것 30그램을 즙을 짜서 꿀에 담가서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2~3일이면 효험을 본다.

비단풀은 항균작용이 강하다. 황색포도상구균, 초록색연쇄상구균, 용혈성연쇄상구균, 폐렴쌍구균, 카타르균, 디프테리아균, 대장균, 녹농균,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이질균, 변형균, 백일해간균 등을 죽이거나 억제한다.

항암작용이 뛰어나므로 갖가지 암 치료에도 쓸 수 있다. 특히 뇌종양, 골수암, 위암 등에 효과가 크다. 암세포만을 골라서 죽이고 암으로 인한 여러 증상을 없애며 새살이 빨리 돌아나게 하고 기력을 크게 늘린다.

필자는 2년전에 일생을 암치료법 연구에 바친 어느 외국 교포한테서 남미의 콜롬비아에 모든 암을 귀신같이 고칠 수 있는 신비로운 약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돈 1천만원을 마련하여 이름도 모르고 생김새도 알수 없는 풀을 찾아서 콜롬비아로 날아간 적이 있다. 콜롬비아에서 다시 페루로,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안데스 산맥을 버스로 넘어 아마존강 상류에 있는 작은 도시인 푸갈파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마나우스로 갔다. 마나우스에서 50년도 더 된 낡은 비행기를 전세 내어 외국인이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정글 속의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그것은 밀림속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마당 한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원주민들도 이름을 모르고 약으로도 쓰지 않는 조그마한 풀이었다.

필자는 원주민을 시켜 그 신비의 약초를 수백 킬로그램 채취하여 맡겼다. 큰 여행 가방 두 개에 가득 담고 큰 자루에도 담아 마나우스로 가져와서 정부관리한테 반출허가를 얻은 다음 일부를 화물로 부치고 일부는 여행가방에 넣어 몇번이나 공항경찰과 세관에서 체포당하고 압수당할 뻔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서울로 가져왔다. 그런데 얼마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 마당의 화단을 관찰하다가 깜짝 놀랐다. 시멘트가 갈라진 틈새에 죽을 고생을 해서 아마존 정글에서 가져온 약초와 꼭 같이 생긴 풀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잎모양도 같았고 줄기를 끊으면 흰즙이 나오는 것도 같았고 먹어서 쓴맛이 나는 것도 꼭 같았다. 이럴수가! 자세히 보니 그 풀은 그곳 뿐만이 아니라 마당 곳곳에 관리인이 게을러서 풀을 뽑아주지 않는 곳마다 자라고 있었다. 그렇다. 그 신비의 약초는 아마존 정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흔히 있는 잡초였다. 나는 신비의 영약을 발밑에 두고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아마존 정글을 헤매다 온 것이었다. 진리는 언제나 눈앞에 있고 선약은 언제나 발밑에 있다. 약은 늘 거기에 있되 다만 사람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뿐이다.

서유럽에서 인기있는 생약재 ⑦

- 디기탈리스 (Digitalis Purpurea L)

잎은 심부전에 특약 꽃 예뻐 관상용으로도 식재

디지탈리스는 현삼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며, 일년생일 때는 기생(基生)의 잎을 형성하나 꽃대가 나오지 않는다. 2년째가 되면 직립성의 줄기에 잎이 착생하며 5월경에 홍자색의 꽃이 핀다. 꽃은 총상화서이다. 꽃의 색깔이 핏빛이어서 이름을 디지탈리스 퍼푸리아 (Digitalis purpurea)라고 명명하였다.



이 생약이 처음 약용된 기록은 1640년으로 파킨슨병 치료제로 권장되었고, 1650년에 비로소 런던 약전에 수록되었다. 1775년에 영국의 위더링 윌리엄에 의해 근대적인 연구가 비롯되었고, 1785년 이 생약이 수종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고, 1871년에는 네티볼르(Nativelle)에 의해 이 생약의 유효성분인 디기톡신(digitoxin)이 처음으로 분리되었다. 디지탈리스계 식물은 붉은색을 띠는 D. purpurea, D.

grandiflora와, 노란꽃을 지닌 D. lutea가 있으며, D.canariensis, L.var. isabellina는 관목성(灌木性)을 띠고 있다.

성분은 강심 배당체가 주종인데 제닌 글리코시드 (genin glycoside)로는 퍼푸리아 글리코시드(purpurea glycoside) A, B, C가 있으나, 실제 약용되는 성분은 제2배당체에 속하는 디기톡신 (digitoxin), 기톡신 (gitoxin), 기탈로신 (gitaloxin) 등이다. 기타 색소로서는 포마린

(phomarin), 이소크리소파놀(isochrysophanol), 퍼푸라닌(purpuranin) 등이 있다. 디기탈리스 퍼푸리아의 잎에서는 30여종의 강심배당체가 이미 분리, 보고되어 있어 실로 강심배당체 생약의 주종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이 식물의 이용부위는 잎, 꽃, 종자 등 거의 전초가 다 이용된다. 그 중 잎은 창상(創傷)치료제로, 심부전(心不全)에 특약이며, 하루에 300만명의 사람을 살린다고 할 정도로 매우 이용도가 높다. 이 약의 부작용은 과량이나 장기투여에 따라 오심, 구토, 부정맥, 빈맥, 심실진전 등이 있으며 극약으로 취급되고 있다. 현재 주 공급원은 캐나다이며,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도 널리 식재되고 있다. 관상용 식물 한그루에는 3.5\$ 정도하며, 종자 1g(6,000종자)에는 약 2-3\$ 정도에 달한다. 종자 구입은 http://www.cnseeds.demon.co.uk/herb_cat/f_herbs.htm로 하면 된다.

최명석 교수 (경상대학교 산림과학부)